

경기전서 펼쳐지는 달빛 아래 특별한 산책

전주시, 경기전 야간 탐방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 개막... 10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운영

달빛이 내려앉은 경기전에서 이야기를 따라 걸으며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보는 특별한 산책, '왕과의 산책'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 경기전에서 야간 역사 해설 프로그램인 '왕과의 산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9년째 맞이한 '왕과의 산책'은 매년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명성을 이어온 전주의 야간 문화 대표 콘텐츠로, 매해 매진 행렬을 이어오고 있다.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된 '왕과의 산책'은 27명의 배우가 경기전 내 총 9개의 장소에 분포돼 경기전의 역사와 전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관객들은 그 일부가 돼 함께 호흡하는 동시에, 경기전 입구를 시작으로 흥실문과 정전, 전주사당, 예종대왕태실 및 비, 조경도, 부속채 등 경기전



달빛이 내려앉은 경기전에서 이야기를 따라 걸으며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보는 특별한 산책, '왕과의 산책'이 펼쳐진다.

내 주요 공간을 이동하며 각 장소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

특히 경기전의 공간적 특성을 극대화한 '왕과의 산책'은 경기전에 대한 해설을 넘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서사를 담아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경기전의 역사적 의미를 물론, 전주라는 도시가 지닌 역사성을 깊이 이해하고 체감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로 기대된다.

또한 왕과의 산책은 일반 관람이 종료된 이후의 경기전을 야간에 둘러볼 수 있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경기전의 고즈넉한 풍경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오직 전주 여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로 9년째 맞이한 '왕과의 산책'은 지역의 예술가와 기획자가 합심해 만든 전주의 보석 같은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즌 1을 거쳐 지난 2023년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즌 2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후서기(7월 25일~8월 29일)와 10월 3일에는 휴연하며, 그밖에 프로그램 일정 및 사전 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예약사이트(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4277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민 위한 '유쾌한 인문학'

7월 28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민들이 인문학을 통해 행복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민인문학 강좌가 운영된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이 인문학을 산책하듯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 '유쾌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유쾌한 인문학은 흥미로운 주제와 시민들이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과학철학과 동양철학, 삶과 글쓰기, 신화 등 다양한 인문학을 선보일 예정으로, 총 5개 시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유쾌한 인문학 시즌3에서는 먼저 매주 월요일 조선 후기 실용 지식의 집대성인 '임원경제지'를 중심으로 학문과 여행, 의학, 음악, 천문, 삶의 철학까지 총 6개 강좌가 진행된다.

이어 매주 화요일에는 신화학자인 김영(청강문화산업대) 박사가 신화를 주제로 조지프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읽기와 '일

상의 균열과 미지의 부름'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유쾌한 인문학에서는 현장과 이론의 지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문여행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평소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자녀 양육 때문에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해 동시간대(화요일 오후 7시)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인문학 '그림책으로 만나는 세상(신화편)'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유쾌한 인문학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3만 원(어린이 인문학=5000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 또는 전화(063-281-5367)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섭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한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가면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효자아이꿈어린이집, 직접 가꾼 텃밭 채소 판매 수익금 기부

전주지역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교사들이 정성껏 가꾼 텃밭 채소를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효자아이꿈어린이집(원장 김선영)은 22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성금 2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어린이집 텃밭에서 원아들이 직접 가꾸고 수확한 채소를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원아와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뜻을 모아 기부에 참여했다.

원아들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채소를 키우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수확한 채소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민이 일군 '시민참여정원' 성과 공유

성과공유회 열려...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연계 분산형 11개소·거점형 5권역 지속 가능한 정원 탄생

전주시는 22일 전주정원문화센터 1층 강의실에서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과 정원 작가, 교육 참여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정원 조성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시민참여정원 조성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고, 시민들의 탄방을 토대로 완성된 우수 정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된 시민 참여정원 조성 프로그램은 박람회 이후에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정원을 가꾸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시민참여 정원 조성에는 지난 4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3달간 초록정원관리사 31명과 분산형 지역주민 등 121명 등 총 15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상지별로 정원작가 및 지역인력과 협업해 분산형 정원 11개소와 거점형 정원 5권역을 직접 조성했다.

또, 대상지별로 디자인부터 조성까지



전주시는 22일 전주정원문화센터 1층 강의실에서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과 정원 작가, 교육 참여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정원 조성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식재 및 실습 교육을 현장에서 진행하며 가드닝 역량을 키웠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3달간의 치열했던 정원 조성 과정을 담은 아카이빙 영상을 시청하고, 프로그램 결과 보고를 통해 정원 인프라 구축 성과를 함께 확인했다.

또한 시는 정원 조성의 공간계획 및 참신성, 활동일지, 시민참여도,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 평가해 우수정원 3개 팀에게는 전주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박람회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주도해

일상 속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정원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전문가와 시민이 마을을 모아 도심 곳곳에 지속 가능한 정원을 탄생시킨 것의 손길로 가꾸어진 정원들이 전주를 더 푸르고 아름다운 정원도시로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지역 8개 서점이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도서 기증에 사용했다.

지역서점 8곳, 도서 기부 '책콩20+' 로 온기 전달

전주지역 8개 서점이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사회 아동을 위한 도서 기증에 위해 사용했다.

전주시는 22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실에서 지역서점 8개소가 마련한 기증도서를 전주시가족센터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도서 기증은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책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인 '함께라서(書)' 중 '책콩20+'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권희성 기자

도서 기증에 참여한 지역서점은 △고래의 꿈 △까공 어린이서점 △세광 도서 △소소당 △어린이서점 포레 △잘 익은 언어들 △책보 책방 △흥지서림 등 총 8곳으로, 전주지역 독서 소외계층에 도서를 전달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전달된 도서는 아동도서 196권과 일반도서 409권 등 총 605권(500만 원 상당)으로, 전주시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금> 전주시 제공